

■ 2022년 신나는예술여행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도 신나는예술여행사업
- 회의일시
 - 전수검토 및 평점 : 2021년 11월 23일(화)~12월 14일(화)
 - (최종심) 아동 유형 : 2021년 12월 20일(월) 13:00~13:45
 - (최종심) 청소년, 노년, 장애인 유형 : 2021년 12월 21일(화) 13:00~13:50
 - (최종심) 특수, 일반 유형 : 2021년 12월 22일(수) 13:00~13:40
- 회의장소 : 비대면(온라인)심의
- 심의위원(가나다순) :
 - 아동 유형 : 김대성, 성준현, 신예술, 심진경, 이호은, 전주현, 정재훈
 - 청소년, 노년, 장애인 유형 : 강현철, 김건형, 이미희, 장정진, 전지영, 채명순, 최원선
 - 특수, 일반 유형 : 고명철, 김지연, 김호성, 노복순, 반민순, 오훈식, 이윤희, 조은경

□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향유지원 사업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제약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을 찾아가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즉, 1차적인 지원대상자는 문화예술 소외층 국민이며 참여하는 예술단체도 성취한 창작성과를 실연하고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2차적인 지원대상자라 할 수 있다.

□ 심의방법

○ 수요자 유형별 심의 진행

- 신나는예술여행사업은 2021년도부터 수요자 유형을 기준으로 세부사업 구조가 정비되었다. 2022년도에는 수요자 유형이 세분화되었다. 즉,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국민)특수, (국민)일반 등 6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6개 유형 안에서 수요자 및 방문할 시설을 더욱 나누면 18개 유형이다)
- 위와 같이, 6개 유형으로 사업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공모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6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 심의 구성 및 운영 단위도 6개 유형을 근간으로 설정하였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

- 6개 유형 각각에 참여를 신청한 예술단체의 수를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분과를 구성하였는데 분과별 심의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세부(사업)유형	신청접수건수	행정결격건수	심의대상건수	분과별 심의건수
아동	517	23	494	아동분과 (494건)
청소년	376	11	365	청소년, 노년, 장애인 분과 (634건)
노년	205	8	197	
장애인	73	1	72	
특수	47	5	42	특수, 일반분과 (365건)
일반	342	19	323	
합 계	1,560	67	1,493	-

○ 심의절차

- 2022년도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참여단체 선정 심의는 1) 심의절차방법 설명회 2) 전수검토 3) 채점 (지원심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채점) 4) 채점결과 집계 5) 최종 심의회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심의절차별 진행 일시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회의주체	회의내용 (주요안건)
1단계	심의위원 설명회	○사업 개요 및 심의 방법 등 안내 (비대면회의) - 2021.11.18.(목) 10:00
2-3단계	전수검토 채점	○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토대로 전수 검토 및 채점 - 심의자료등재 및 온라인 전수검토(채점)시스템 활용 - 2021.11.23(화)-12.14(화)
4-5단계	(최종심) 지원대상 및 지원액 확정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선정 (비대면회의) - 아동 유형 : 2021. 12. 20(월) 13:00 - 청소년, 노년, 장애인 유형 : 2021. 12. 21(화) 13:00 - 일반, 특수 유형 : 2021. 12. 22(수) 13:00

○ 채점 및 최종심 진행 방식

- 사전 전수검토 제도는 심의회의 전 각 심의위원이 담당하는 심의건 전수에 대해 심의 항목별 채점과 그 근거를 사전에 보고서형태로 서술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사전 온라인 채점은 전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심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의 지표별로 5등급 평가를 진행하여 평정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최종 심의회의에서는 심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정확히 숙지한 심의기준과 방법을 토대로 모든 심의위원이 각고의 노력으로 작성해준 전수검토의견과 채점결과를 놓고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층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심의기준/가중치

○ 심의기준과 가중치

- 2022년도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참여예술단체 심의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심의기준	비중		세부평가내용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4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이 그것을 향유하게 될 수요자의 선호와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이 수요자의 선호와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이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를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들이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
프로그램 수행계획 의	3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하는 사업비 (1회당 사업비)의 규모와 세부 집행 항목 및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

심의기준	비중		세부평가내용
적합성과 구체성		10%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 및 공간에 대한 활용 또는 연출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30%	15%	• 참여인력의 수와 역할 구성,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15%	• 신청단체는 유관 사업 추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선택한 수요자 유형을 대상으로 한 예술향유 증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한 과거 실적 - 이전에 신나는예술여행 수행 단체는 이전의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합계	100%	100%	-

○ 2022년도 심의기준과 가중치의 특징

- 2022년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참여단체 선정 기준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감안, 2021년도 심의기준을 대부분 유지했다.
- 다만, 세부평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문 형식으로 전환하여 심의 기준과 착안 사항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기준 안에 예술성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반영한 결과로서 수요자 눈높이를 감안하면서도 뛰어난 예술성을 갖춘 작품과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결과다.

□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차별화, 정체성 강화 필요

- 2021년 현재, 신나는예술여행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춘마이크 사업이 있으며, 지자체 사업의 경우 각 시도 및 시군구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있다.
- 지자체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의 경우, 광역시도는 17개 중 15개(대전, 제주 외)가 추진 중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총 229개 중 153개가 시행중에 있다.
- 지자체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의 예산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약 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시·도 사업 평균 321백만원 기초자치단체 사업 평균 44.3백만원)
- 이와 같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은 이제 신나는예술여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업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정체성 강화 방향으로서 사회, 경제적 소외층 중심 사업화 뿐 아니라 프로그램(내용) 면에서의 차별화가 매우 필요

- 정교하게 구분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나는예술여행이 지역적인 요인에 의한 소외 보다는 사회적(교정시설, 군부대 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경제적 소외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수요자 유형의 조정 등과 같은 차별화 노력 뿐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전제로 가요, 트롯, 마술 등 일반 무대나 방송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포함된 기획안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예술의 가치와 우수성, 그리고 예술을 통한 치유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요컨대, 예술복지차원에서의 대중화 관점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예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술성 관점을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하였다.

○ 수요자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의 중요성

- 참여 신청한 예술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취지와 완성도 측면 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각 수요자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 큰 편차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착안사항으로 삼았으며, 예술단체와 예술위원회의 지속적인 향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유형별 예산(사업비) 배분과 참여단체 선정 예정 수 도출

○ 6대 유형, 세부사업별로 배정 예산액 설정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하나의 사업 안에 여러 유형이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참여 예술단체를 선정하려면 각 세부 유형 별로 몇 개의 단체를 선정할지를 미리 정해야 한다. 선정할 단체 수는 각 유형별 배정 예산에 따라 연동되므로 미리 각 유형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주관부서가 제안한 배정계획(안)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논의하고 그러한 배정계획(안) 토대로 유형별 선정 단체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참여 단체를 선정하였다.
- 배정계획(안)의 토대가 된 배정 기준으로서 유형별 시설 수, '21년 배정예산, '21년 신청시설 수, '22년 신청(예술)단체 수, 정책가중치 등은 적절한 기준이라 판단하였으며 각 가중치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아동 유형의 비중을 가장 높게 설정하여 예술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수요자 유형에 대해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정책가중치 기준도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6대 유형, 세부사업별 배정 예산 결정 기준

기준	정의	가중치(%)
시설 수	2022년 유형별 방문시설 개수	5
2021년 배정예산	2021년 유형별 배정예산	15
2021년 신청시설 수	2021년 수요처 신청 시설 수	15
2022년 신청단체 수	2022년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신청 단체 수	45
정책가중치	유형별 특성 및 우선순위 적용	20
합계		100

○ 6대 유형, 세부사업별 배정 예산 결정 기준 중 정책가중치

- 장애인, 아동 등 예술체험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고 반면, 예술감상 효과가 큰 수요자 유형에 대해 정책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였다.

유형	내용	가중치(%)
아동	문화예술 경험이 중요한 연령대이고 시설 수가 많고 참여의향이 높은 점을 반영	25
청소년	방문시설의 수요에 크게 변동은 없으나, 성장기 문화예술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반영	15
노년	노령층이 증가하고 방문시설 세분류 유형 중 신규 편성(요양병원) 부분을 반영	1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이 특히 취약한 상황을 반영	30
특수	군부대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 신청단체 수를 감안하고 코로나 19 로 인한 출입제한 상황을 반영	5
일반	지자체 등 타 재원 유사사업 추진상황, 2021년도 취소 건 발생 상황 등을 반영	10
합계		100

○ 6대 유형, 세부사업별 예산 배정(안)

- 유형별 예산배정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유형별 선정 목표수를 설정하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유형	회당 지원금(추정)	배정액(안)	선정예정수(안)
아동	평균 12회 / 5.5백만원	6,195,900,000	94건
청소년	평균 12회 / 5.5백만원	4,149,700,000	63건
노년	평균 12회 / 5.5백만원	2,344,700,000	36건
장애인	평균 12회 / 5.5백만원	2,251,500,000	34건
특수	평균 12회 / 5.5백만원	1,200,600,000	18건
일반	평균 12회 / 5.5백만원	4,226,500,000	64건
합계		20,368,900,000	309건

□ 심의결과 (참여 예술단체 선정결과)

- 참여 예술단체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전수 검토 과정에서 채점한 결과를 합산하여 신청단체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단체부터 상세 내역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확인하였다.
- 심의위원회는 질의, 토론 진행 결과를 반영하여 유형에 배정된 예산액을 소진하는 수준에서 선정 예술단체(안) 및 예비단체(안) 목록 작성을 하고 확정하였다.
- 이 때, 동 사업의 올해 지역(비수도권)단체 선정 최소비율인 36%를 준수하였다.
- 각 유형별 선정단체수와 결정액은 아래 표와 같다. 회당사업비 결정과정에서 당초 회당 소요액 추정액보다 감액 조정하여 선정단체는 예정수보다 10개가 늘어난 319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단위: 원, 건)

유형	선정 예정수	선정 단체수(b)	(회당)사업비 평균액(c)	결정금액 (a*b*c)	선정단체지역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아동	94	98	5,255,102	6,168,000,000	60	38
청소년	63	64	5,442,188	4,158,800,000	41	23
노년	36	37	5,324,324	2,317,800,000	21	16
장애인	34	36	5,300,000	2,232,400,000	25	11
특수	18	18	5,572,222	1,181,200,000	11	7
일반	64	66	5,427,273	4,256,400,000	46	20
합계	309	319	5,385,852	20,314,600,000	204	115(36.1%)

○ 6대 유형별 배정 예산액 대비 결정액

- 당초 선정 목표총액 (20,368,900,000원) 대비 54,300,000원 잔여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여액을 코로나19 대비 취소건 보상비, 재난상황 예비비 및 도서지역 교통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사업주 관부서에서 제안하였고 심의위원회가 이에 동의하여 승인하였다.

(단위: 원, 건)

유형	선정예정수 (배정액) (a)		선정결과 (b)		차액 (a-b)
	수	액	수	액	
아동	94	6,195,900,000	98	6,168,000,000	27,900,000
청소년	63	4,149,700,000	64	4,158,800,000	-9,100,000
노년	36	2,344,700,000	37	2,317,800,000	26,900,000
장애인	34	2,251,500,000	36	2,232,400,000	19,100,000
특수	18	1,200,600,000	18	1,181,200,000	19,400,000
일반	64	4,226,500,000	66	4,256,400,000	-29,900,000
합계	309	20,368,900,000	319	20,314,600,000	54,300,000

○ 6대 유형별 각 프로그램 유형 및 장르별 선정 내역

- 아동 유형

프로그램 형태별					(세부) 장르별				
형태	신청		선정		장르	신청		선정	
문학형	6	1.2%	3	3.1%	문학	6	1.2%	3	50.0%
전시형	11	2.2%	2	2.0%	시각예술	11	2.2%	2	18.2%
공연형	477	96.6%	93	94.9%	연극뮤지컬	166	33.6%	43	25.9%
					무용	20	4.0%	4	20.0%
					음악	105	21.3%	10	9.5%
					전통예술	101	20.4%	22	21.8%
					다원예술	64	13.0%	10	15.6%
					문화일반	21	4.3%	4	19.0%
계	494	100%	98	100%	계	494	100%	98	19.8%

- 청소년 유형

프로그램 형태별					(세부) 장르별				
형태	신청		선정		장르	신청		선정	
문학형	4	1.1%	1	1.6%	문학	4	1.1%	1	1.6%
전시형	2	0.5%	0	0%	시각예술	4	1.1%	0	0%
공연형	359	98.4%	63	98.4%	연극뮤지컬	117	32.1%	20	31.3%
					무용	20	5.5%	6	9.4%
					음악	93	25.5%	13	20.3%
					전통예술	68	18.6%	12	18.8%
					다원예술	40	11.0%	7	10.9%
					문화일반	19	5.2%	5	7.8%
계	365	100%	64	100%	계	365	100%	64	100%

- 노년 유형

프로그램 형태별					(세부) 장르별				
형태	신청		선정		장르	신청		선정	
문학형	0	0%	0	0%	문학	0	0%	0	0%
전시형	3	1.5%	2	5.4%	시각예술	4	2.0%	2	5.4%
공연형	194	98.5%	35	94.6%	연극뮤지컬	38	19.3%	7	18.9%
					무용	11	5.6%	2	5.4%
					음악	36	18.3%	3	8.1%
					전통예술	83	42.1%	18	48.6%
					다원예술	17	8.6%	4	10.8%
					문화일반	8	4.1%	1	2.7%
계	197	100%	37	100%	계	197	100%	37	100%

- 장애인 유형

프로그램 형태별					(세부) 장르별				
형태	신청		선정		장르	신청		선정	
문학형	0	0%	0	0%	문학	0	0%	0	0%
전시형	3	4.2%	1	2.8%	시각예술	3	4.2%	1	2.8%
공연형	69	95.8%	35	97.2%	연극뮤지컬	13	18.1%	7	19.4%
					무용	4	5.6%	3	8.3%
					음악	29	40.3%	13	36.1%
					전통예술	10	13.9%	2	5.6%
					다원예술	9	12.5%	6	16.7%
					문화일반	4	5.6%	4	11.1%
계	72	100%	36	100%	계	72	100%	36	100%

- 특수 유형

프로그램 형태별					(세부) 장르별				
형태	신청		선정		장르	신청		선정	
문학형	0	0.0%	0	0.0%	문학	0	0.0%	0	0.0%
전시형	0	0.0%	0	0.0%	시각예술	0	0.0%	0	0.0%
공연형	42	100%	18	100%	연극뮤지컬	6	14.3%	1	5.6%
					무용	3	7.1%	2	11.1%
					음악	9	21.4%	3	16.7%
					전통예술	9	21.4%	3	16.7%
					다원예술	9	21.4%	6	33.3%
					문화일반	6	14.3%	3	16.7%
계	42	100%	18	100%	계	42	100%	18	100%

- 일반 유형

프로그램 형태별					(세부) 장르별				
형태	신청		선정		장르	신청		선정	
문학형	3	0.8%	0	0.0%	문학	3	0.9%	0	0.0%
전시형	9	5.3%	0	0.0%	시각예술	7	2.2%	0	0.0%
공연형	311	94.0%	66	100%	연극뮤지컬	55	17.0%	15	22.7%
					무용	5	1.6%	1	1.5%
					음악	125	38.7%	11	16.7%
					전통예술	87	26.9%	26	39.4%
					다원예술	26	8.0%	7	10.6%
					문화일반	15	4.7%	6	9.1%
계	323	100%	66	100%	계	323	100%	66	100%

○ 6대 유형별 평점 결과

유형	심의대상 전체				선정 단체			
	평균	최고	최저	표준편차	평균	최고	최저	표준편차
아동	84.84	93	75.71	2.99	88.94	93	87.43	1.38
청소년	78.62	90.71	62.29	4.33	84.79	90.71	82.29	1.49
노년	79.69	90.29	65.07	4.38	85.44	90.29	83.86	1.31
장애인	81.0	91.57	69.5	4.39	84.51	91.57	80.71	2.54
특수	82.8	89.25	74.88	3.78	86.03	89.25	82.25	1.91
일반	82.44	91.5	73.5	3.45	87.38	91.5	84.63	1.6

□ 기타 결정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상당한) 징후 단체에 대한 조치계획 승인

- 장애인 유형 신청단체 중 1개의 단체가 2021년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상당한) 징후 단체에 해당 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단체에는 포함하지만 향후 부정수급 징후 해소 시점까지 사업비를 교부할 수 없음을 논의하고 승인하였다.
- 해당 단체는 심의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등 예술위원회의 공통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기로 하였다.

○ 사례비 책정기준 기준에 미흡한 일부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 심의위원회는 선정 단체일 지라도 사례비 편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단체들은 사업비 교부단계에서 이를 적정하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권고하였다.

□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 선정된 단체들은 6개 유형별로, 그리고 해당 유형 안에서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수요자 유형이나 시설에 대해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 해당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 선정된 단체들은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함께 사업경험, 단체운영에 대한 신뢰성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경험이 부족한 단체라도 하더라도 프로그램 기획의 구체성과 성실성, 그리고 예술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 프로그램 수행계획의 적합성과 구체성

- 선정된 단체들은 공모안내서의 기준을 준수하여 회당 사업비 규모를 설정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지출항목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면에서 우수하였다.
- 또한, 장소 및 공간연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단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연형의 경우 제출한 동영상에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나 구성을 가늠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은 이러한 정보 전달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은 참여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도, 단체가 이전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 이전의 활동에서 보여 준 역량 등이 뛰어나고 이를 충실히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 소회 및 당부사항

○ 아동 유형 분과 심의위원회

- 신청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취지와 완성도의 차이가 꽤 컸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익숙하고 무난한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대적인 감수성과 보편적 시민성의 수준을 갖추는 데도 집중을 했으면 한다.

- 오래 전부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단체들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작품 선정이나 아동들의 상황에 맞는 진행 시간(러닝타임), 진행방식 면에서 연령대에 더욱 부합하도록 작품의 내용과 진행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신청 프로그램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공연형 예술 사업의 신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전통연희와 국악, 한국무용 등의 예술 장르와 클래식이나 뮤지컬로 대표되는 장르를 결합하는 기획의 사업들이 많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질적인 장르의 단순한 표면적인 혼합이 많아 기획 의도 본연의 참신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방향이 아쉬웠다. 여러 장르를 무대 위에서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콜라보레이션을 제시하지만 막상 무대 위의 공연은 여러 장르를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친 단체가 적지 않았다. 콜라보레이션(본래 의도)에 적합하게 다른 장르를 조화롭게 mix&match하는 무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아동들의 체험을 유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좋은 시도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한 단체 중 적지 않은 수가 체험 프로그램을 구색만 갖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아동들에게 예술/놀이/체험/교육의 경계가 나뉘기보단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기에 체험 영역이 공연의 부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과의 유기성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 수요자가 아동이므로 주제, 내용, 표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설화나 역사를 예술콘텐츠화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권장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전쟁’ (폭력)을 주제로 하거나 ‘선비’ (계급)가 주인공인 경우, 무엇보다 옛 이야기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적 구도와 젠더차별적인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성역할을 고정적인 것으로 강화하고 은연중에 자행되는 젠더 차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다수였다([단일]민족주의 고취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차후 사업 진행시 단체들이 폭력에 대한 경각심 및 계급과 젠더 차별에 대한 동시대적인 감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필히 인지했으면 한다. 향후 신청 단체들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폭력 및 계급과 젠더 차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게 다뤄주었으면 한다.
- 사업 취지에 맞도록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아동의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 감성이나 예술성, 무대에 대한 신비성을 전달하는 창의적인 기획 등은 앞에서 제시한 많은 의견과 제안들과 함께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 청소년, 노년, 장애인 분과 심의위원회

- 타 기관에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므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추진 목적과 특징을 살려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고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유형 중 공연형의 경우 ‘체험’ 부분을 강조하면서 교육 사업에 치중하는 단체들도 많이 지원하다보니 타 기관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본 사업의 취지가 사라지는 우려도 가지게 한다. 가급적이면 다른 기관과 변별력 있는

공연형 프로그램 보급에 집중했으면 바람이다. 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사업과 변별성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예술(컨텐츠)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 문화예술위원회의 목표와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예술복지 차원에서의 대중화도 중요하지만, 수준 높은 예술과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수요자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이유로 가요, 트롯 등 일반 무대나 방송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과도하게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신나는예술여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예술의 품격을 저하 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전공자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수요자에게 딱히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다. 흥미(스펙타클)에 집착하다보니 예술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행사용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 본 사업은 찾아오는 공연이 아니고 '찾아가는' 공연인 만큼 수요자층에 특화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노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유형에서 참여 단체들은 청소년의 경우 공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노년의 경우는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장애인의 경우 어떤 체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경우는 대개 학교 수업을 묶음 강의나 1회 강의 등의 형식을 빌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므로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 즉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 공간에 대한 활용과 안전성 여부 등이 중요하다. 노년의 경우는 복지관, 요양기관 등 장소가 갖는 특성을 배려하고 이해한 후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어떻게 노년층의 참여와 호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장애인 유형의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얼마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게 이끌고 있는 지, 공연을 통해 오감의 어떤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종합 예술을 통한 교육적인 기획이면서도 공연 내용과 교육이 직접 연계되는 경우는 좋은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공연 전후의 예술 교육을 접목한 경우가 많았는데, 악기 등을 단순히 전시하고 만지게 해주거나 아주 짧은 시간의 설명을 교육으로 기획한 경우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 심의회의 중에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단체와 예술 단체는 구분해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분이나 제재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검토하면 좋을 듯하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경우 기획서나 영상 자료 등이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기에 검토하면서 성사 가능성 등이 높아 호평을 하게 되긴 하지만, 예술인 지원이라는 취지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예술 여행 사업에서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것처럼, (명확한 구분이 사실상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와 공익 단체 사이에 구분이나 정책적인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노년 유형과 장애인 유형의 경우 트로트와 마술 등의 일회적 유희를 통하여 위로를 전한다는 기획이 다수였다. 물론 해당 시설에서는 일회적 공연이지만, 예술 여행 사업 자체는 다년간 많은 단체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다층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노년, 장애인 층의 일회적 위문 방문보다는 예술적 지식이나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요양병원과 노인복지관은 기관 성격도 다르고 구성원 연령대와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는 적합해보이나 노인복지관에는 썩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노인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식의 당위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타겟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 그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것이 예술가에게 갖는 의미, 그들을 이해하는 것과 그들을 타자화 시키는 것의 차이에 대한 경계 등의 성찰이 필요하다.
- 장애인 유형의 경우, 장애 특성과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전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제안이 적지 않았다. 치유나 장애인 복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신나는예술여행은 예술 사업이지 의료 사업이 아니며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예술로 함께 하는 사업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 상에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을 장애인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어떻게 예술로 함께 할 것인지 면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사업비 편성 항목 중 사례비 항목의 경우 2022년도부터 사례비 편성기준을 공모 단계부터 제시 하였음에도 단체 간 편차가 크고, 반드시 필요한 참여 인력인가? 분명한 역할과 기여가 입증되는가? 하는 고민을 갖게 하였다. 신청한 프로그램 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확실적인 기준을 제시 할 수 없겠지만, 사례비 편성에 대해서는 더욱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총괄이나 연출 사례비는 매회 필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신나는예술여행에 너무 많은 출연진이 참여하는 기획안도 적절한가? 의문이 들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합창단의 경우도 회차마다 교대로 출연하는 등 출연진의 적정 규모 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특수, 일반 분과 심의위원회

- 설정한 평가지표에 따라서 심의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이다. 아무리 예술적으로 우수하고 아카데미한 작품일지라도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라면 관심과 참여도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 ② 단체의 수행역량과 수행방법이다.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일지라도 기획과 연출에 따라 전혀 다른 무대가 생성되어 공감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③ 이에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과 단체의 역량 및 수행 방법의 독창성에 무게를 두고 심의하였다.
- 심의결과는 특수유형 18개 단체 선정, 일반유형 66개 단체 선정, 특수에서는 음악(38.6%), 다원(15.8%), 전통(14.9%)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일반에서는 전통예술(38.6%), 연극뮤지컬(35.6%), 음악(17.8%)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특수 유형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군부대로만 공연이 한정되었기에 1시간 남짓의 공연시간 동안 군인들의 집중도와 예술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선정에 주력하였다. 일반 유형의 경우 병원,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아파트, 산업단지 등 5개 세 분류 공연장소로 나뉘는 만큼 해당 장소와 관객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의 깊게 기획한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 다양한 주제와 가치를 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특색과 장점을 보여주는 단체가 많았다. 심의 과정에서 단체의 예술적 우수성과 수혜처와의 매칭시 기대효과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각종 대중 매체와 SNS 등으로 높아진 눈높이와 예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술적 가치를 먼저 지향하였고, 그 다음은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 혹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였다.
- 신나는예술여행사업에 신청한 팀들 모두 예술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통연희를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창조적 예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랜스모더니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분야와 다원예술 분야가 돋보였다. 반면, 이번 심사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사업 목표를 볼 때 대중과의 친화력을 통해 신명을 북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전문성만 중시한 프로그램도 다수 있었다. 대중과 친화력 그리고 대중의 흥을 북돋우는 기획력이 요구된다.
- 선정된 단체들은 참여진의 역량이 높고 장소별 대상관객별 기획이 참신하여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작품을 객석에 전달하는 동시에 향후 단체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능력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 요구되는 다양성에 대해 예술 단체들이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고, 잘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도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하지 못한 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참여진의 역량강화, 유관단체사업 참여경험을 통해 기획력을 보강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 올해 참여를 신청한 단체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이 2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예술계 전반에 정착되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은 대중성 있는 악곡을 구성하여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기획하였고, 이런 이유에서인지 단체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다른 단체와 협업을 통한 기획적인 프로그램도 많았다. 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아 각 단체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보유한 단체는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 공연형의 경우, ‘관객과 무대를 찾아가는 공연’ 인만큼 대상 관객에게 적합한 내용인지, 작품의 예술성은 갖추고 있는지, 공연을 진행할 장소와 공간에 따른 음향과 조명 등의 수행계획과 그에 따는 사업비 규모가 적절한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 참여진의 예술적 역량과 과거의 실적을 살펴보아야 했고 성과 달성 가능 정도를 가늠해 보았다. 제출서류와 서류에 링크된 참고화면 및 제출 동영상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최대한 입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제출 동영상의 경우 해당 공연이 대상 관객과 대상 공연장에 맞을지, 실제 공연에 참여할 출연진들인지도 확인 작업을 하였다. 신나는예술여행사업은 공연현장을 자주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무대이니만큼 예술성이 무척 중요하다. 이는 지원대상이 관객 뿐 아니라 예술단체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단체를 찾아 지원을 해야 해당 문화예술 또한 풍부해 질 것임은 분명하다.

- 공연형 중 연극 장르의 경우 무대 구성과 대사 전달 면에서 음악 장르 등에 비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서인지, 여러 특색 있는 단체 및 콘텐츠가 있었으나 가장 아쉬운 부분은 특별함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웠다. 연극 장르는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전달 수준(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객들이 의미를 찾기에 다소 어려운 소재의 공연들도 적지 않았다.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퀄리티나 진행 용이성 또는 관객에 맞는 요소를 찾아내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극 분야는 일정 부분 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연장 등에서 한 달 이상 공연한 작품 또는 상응하는 성과가 있는 작품 등 일정 정도 이상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공연형 중 음악 장르의 경우, 갈라 콘서트 형태가 많은데 유사한 구성이 많아 변별성이나 기획의 창의성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최근에는 관객 참여형 전시와 퍼포먼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신나는예술여행사업 공모에 시각예술 분야에 신청한 단체와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 기타 권고사항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의 심의위원이 평가해야 할 단체수도 크게 부담이 되었다. 많은 지원신청서를 살펴보면 건수가 많다보니 심의의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심의위원 일인당 심의건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영상자료는 심의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일부 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영상 자료를 제출하였다. 영상자료는 단체의 수행역량과 연출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짧게라도 프로그램 내용의 핵심을 반영한 내용을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더욱 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유형별 예산배분안에 대해서는 1회당 총 금액(한도)이 정해져 있었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세부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다.

- 사례비 항목은 취미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의 노력과 시간적 투자,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생각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체에서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 보다는 예술가 개개인에게 잘 지급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1인 기획사가 예술가나 단체를 일회적으로 구성하여 지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이 예술향유 취약층 국민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 예술 활동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도 있으므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사 중심의 1회적인 구성과 참여 신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지원 심의위원 일동